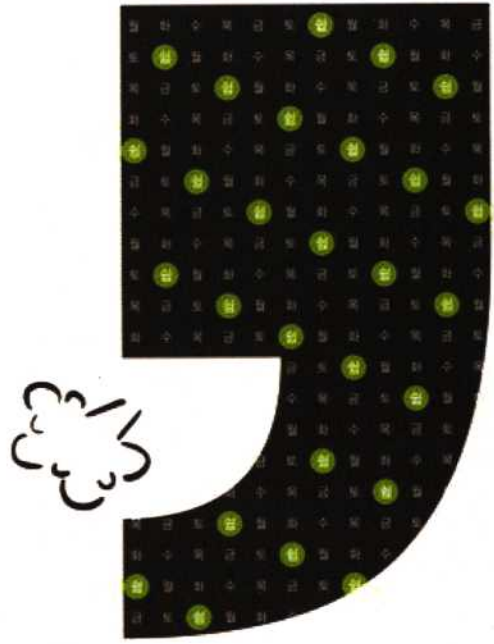


공부야, 쉬었다 가자!



아이들에게 숨쉬는 달력을!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요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www.restedu.net)
- 페이스북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 쉬이 있는 교육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쉬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쉬과 학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개인과 단체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쉬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www.restedu.net



대한민국 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쉬이 있는 교육을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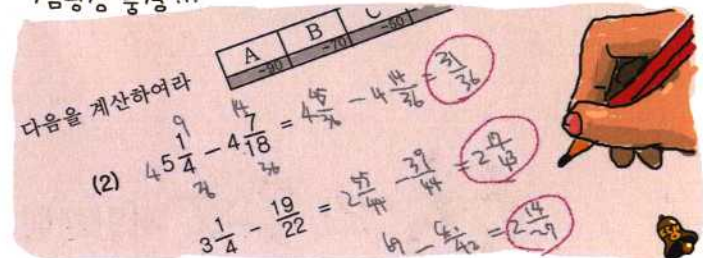
쉬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www.restedu.net



대한민국 학생들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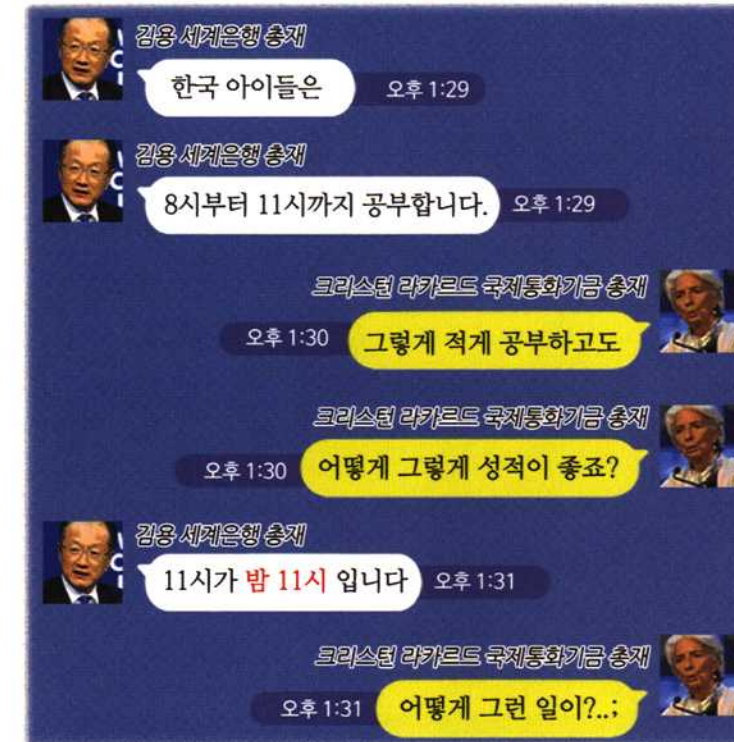


7점땡장 풍경...



© 조남준

크리스틴 라카르트 IMF 총재가 놀란 이유는?



(2013.12.4. 대화 재구성)

- 김용 총재: “4당 5락은 아이들을 천천히 죽이는 행위다. 그런 시스템에 아이들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밤 11시까지만 공부하는 이유도 단지 경찰이 단속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 감사원 보고서(2015)¹⁾에 의하면 강남의 학원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2시 30분까지 영업을 하는가 하면 새벽 1시 12분까지 영업을 한 경우도 적발되었다.
- 쉽이 있는 교육 운동이 주장하는 것은 **공부와 쉽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유한 경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 한도는 무엇보다 시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경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사회적 합의의 선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1) 감사원(2015). 학교교육 정상화 시책 추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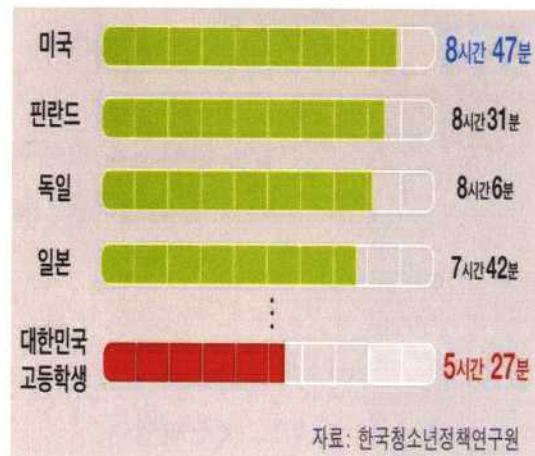
대한민국 학생들의 고단한 현실

○ 세계 최장 학습 시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 수면 시간, 놀이시간 부족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매일 하루 1시간 이상 놀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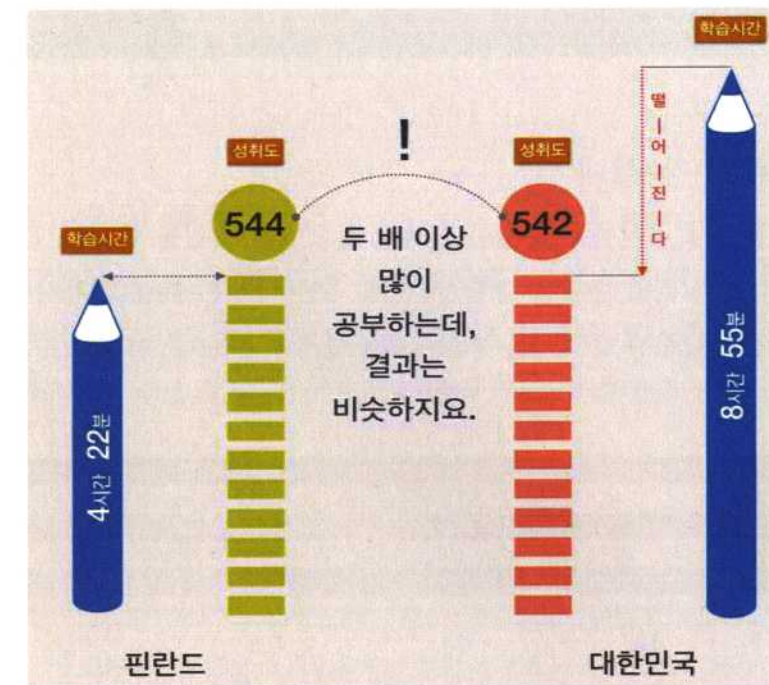
부모들의 어린 시절 68.6%



요즘 어린이 20.6%

- 수면시간은 OECD국가(15세~24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7시간 30분이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한국갤럽(2013)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계고등학생은 평균 5시간 27분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2학년과 부모대상 설문:
 - “매일 하루 1시간 이상 놀았다”: 부모 68.6% > 자녀 20.6%
 - “하루도 1시간 이상 놀지 못했다”: 부모 1.2% < 자녀 23.1% (경향신문, 2014.2.25.)

○ 학습 효율 저하



(수학점수,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 삶의 만족도 쫓겨



학습스트레스 1위

삶의 만족도 쫓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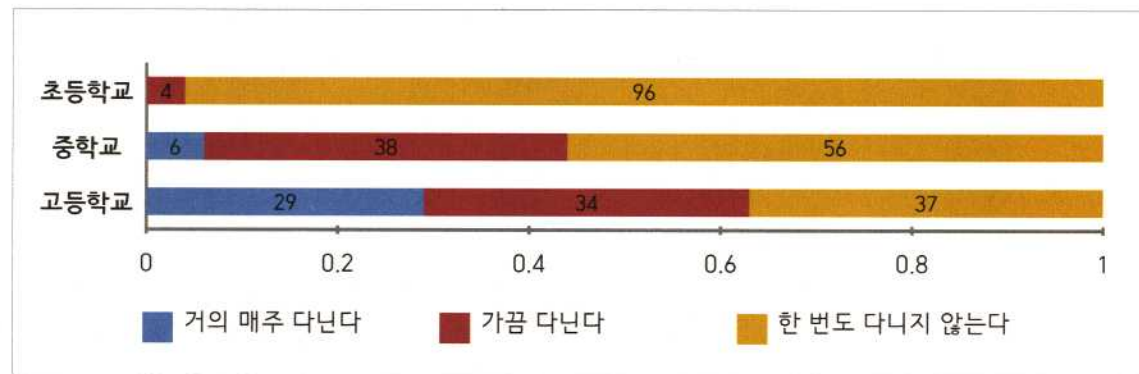
자료: 유니세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보건복지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월화수목금금금... 주말에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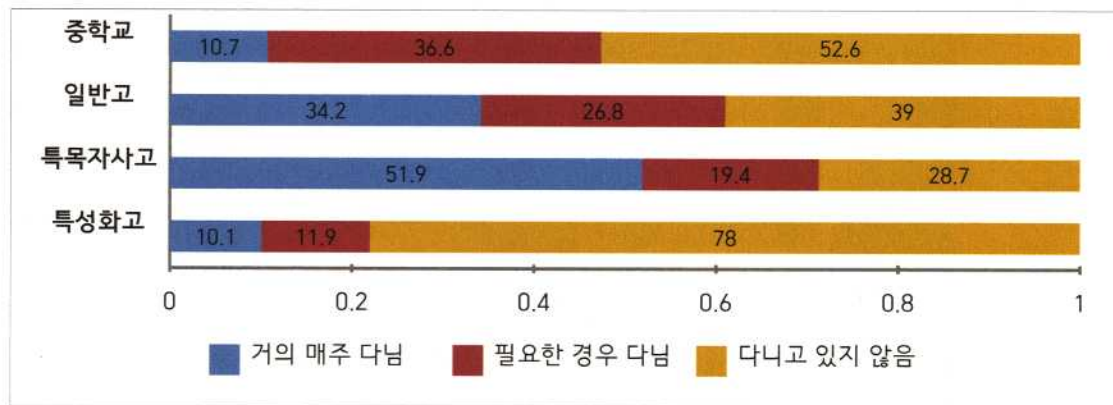
○ 일요일 학원 수강 실태

- 좋은교사운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²⁾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매주 다닌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6%, 고등학생은 29%를 차지했고 '가끔 다닌다'는 경우까지 합하면 중학생은 44%, 고등학생은 63%를 차지하고 있다.



○ 서울 지역 학생 일요일 학원 수강 실태³⁾

- 서울지역의 경우 중학생은 10.7%, 일반고 학생은 34.2%, 특목/자사고 학생은 51.9%로 나왔다. 필요한 경우 다니는 경우까지 합하면 중학생은 47.3%, 일반고 학생은 61%, 특목/자사고 학생은 71.3%에 달한다.



2) 좋은교사운동(2014)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 전국 초중고 학생 645명 및 학부모 442명. 설문방법: research.joongang.com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3) 서울시 중고등학생 2774명(중학생 1,353명, 일반고 1,019명, 특목/자사고 162명, 특성화고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2014.12).

학원영업시간 제한의 필요성

○ 학생들의 심리적 유익

- 대한민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러 조사에서 일관되게 꼴찌로 나온다. 그 원인은 학업 부담이 가장 크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만큼이라도 공부의 압박을 주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쉼의 심리적 유익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최근 뇌과학에서는 '디폴트모드 네트워크'의 작용을 발견하였는데 뇌의 내측전전두엽피질, 전방대상피질, 췌기앞소엽, 해마, 측면두정엽피질로 구성되는데 이는 자기이해, 자서전적 기억, 사회성과 감정의 처리과정, 창의성을 지원한다. 디폴트모드네트워크는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만 활동한다.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쉬고 있을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이치다.

○ 주5일제의 취지 구현

- 주5일제 수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주말이 실종되었다. 오히려 평일에 수업 시간이 늘어나고 주말에 학원까지 다녀야 해서 더욱 부담이 증대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부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문화의 실종으로 이어진다. 평일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운데 주말마저 학원으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함께 보내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 꿈과 끼를 찾도록 하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학원의 불안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위한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 사교육비 감소

-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상 최고치 증가. 특히 고교생 최대 폭 증가. 특히 수도권 사교육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치솟는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교육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원영업시간 제한의 정당성

○ 학원 영업의 자유 문제: "학원심야영업 시간 제한은 합헌"

- 학원심야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학원 영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학생들의 건강과 공익과 견주어서 판단되는 것이다. 학원 심야영업 제한 조례에 대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2008년에 나왔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학원 영업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공익적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조항은 학생 및 학부모인 청구인들이 22:00 이후에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과외교습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과 22:00 이후에 개인과외교습을 받는 자들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조항이 학교, 교육방송 및 다른 사교육에 대하여는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였다고 하여도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 및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사교육 주체인 학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교육인 개인과외교습이나 인터넷 통신 강좌에 의한 심야교습이 초래하게 될 사회적 영향력이나 문제점이 학원에 의한 심야교습보다 적으므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조항이 학원 운영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 학습권 침해가 아니라 과당 경쟁으로부터의 보호

-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학생의 자유라는 것이다. 휴일에 학원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학생을 과당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휴무일을 보장하는 것이 일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학생이 휴일에 학원을 나가는 것은 사실상 과당경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선착순 경쟁의 상황에서 남이 달리기 때문에 자신도 마지못해 달리기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런 선택을 유발하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과당 경쟁으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하는 것을 두고 학습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일요일 휴무)는 매우 유익한 관습이다. 그리고 이 관습은 근로 계급 사람들 사이의 협정 없이는 준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휴업하지는 일반적 협정이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누구 한 명이 휴일에도 일하면 다른 사람들도 일해야 하는 심리적 환경에서는 법률이 어떤 특정한 날에 대부분의 산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 법률이 각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도 공휴일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허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일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 대신에 학습자를 넣어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즉 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과당경쟁과 착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를 과당경쟁과 후사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다.

○ 국민적 여론: 학부모 95%가 학원휴일휴무제 지지

- 일요일에 어떤 업종을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은 대체로 일요일에 거의 모든 업종이 휴무를 하고 있다. 유럽에도 일요일휴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 그 사회는 대체로 일요일에 상업 시설까지도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⁴⁾ 그것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다수의 인식에 달린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학원을 일요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중요한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95%가 학원휴일휴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독일의 경우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의 휴무는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베를린 주 지역 상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일요일/공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는 노동권의 보호, 직업선택 및 영업권의 침해 미비, 과당경쟁의 제어 등을 사유로 연방헌법재판소가 거부한다. 이러한 판결이 2009년 12월 1일 내려진다.

학부모 95%가 찬성하는 학원휴일휴무제

▶ 일요일에 학원을 휴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⁵⁾

① 학생



② 학부모



- 일요일 학원 휴무 법안에 대한 찬성여론은 학생 85%, 학부모 95%로 압도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학생에 비해 학부모의 찬성률이 높다. 학교급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찬반 여부를 분석했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약 91%의 찬성이 있는 반면 고등학생은 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별로 찬성 응답이 92%, 93%, 97%로 학교급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부모들의 심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혼자서 학원을 그만두는 것은 불안하지만 모두가 함께 한다면 찬성한다는 것이다. 개인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피곤해지면서도 실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 즉 개인 차원의 합리성이 사회 전체의 비합리성을 초래하는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노동시간도 매우 길고, 학생들의 학업시간도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휴식과 여가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 **'저녁이 있는 삶', '쉽이 있는 교육'은 시대적 요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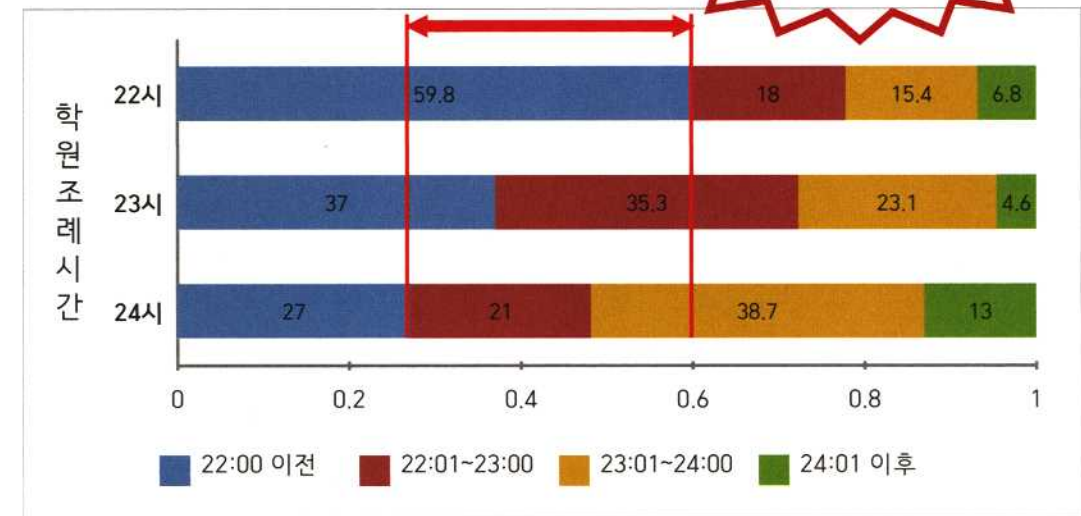
5) 좋은교사운동(2014). 앞의 조사.

학원휴일휴무제의 실효성

○ 심야영업 규제의 효과성

- 이수나⁶⁾ 조사에 따르면 심야영업 규제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생의 사교육 종료시간을 보면 22시 규제로 22시에 종료하는 경우가 59.8%이고 23시 규제 지역은 37.0%, 24시 규제 지역은 27.2%이다. 즉 22시 규제를 할 경우 하지 않을 때에 비해 32.6%가 줄어들었다. 이 만큼의 사교육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른 사교육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교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즉, 풍선의 바람이 빠진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풍선의 바람이 약 30% 빠진 것이라 볼 수 있다.

32.6%의 감소효과!



- 학원심야영업의 경우 규제가 쉽지 않은데도 게다가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이 정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 중요한 것은 준수율이 높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법이 정해지면 웬만하면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학원에 대한 단속이 매우 허술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단속의 효과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준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전국교직원노동조합(2015).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대한민국 학생들은 입시 경쟁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과도한 학습시간에 시달리며, 심야 시간과 일요일에도 학원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강, 정서, 관계, 창의력 등에 심대한 손실을 겪고 있다. 경쟁은 일정한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심야시간과 일요일 만큼은 청소년들에게 휴식의 시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를 개인적 선택으로만 방치할 수 없는 것은 경쟁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로 사회 전체적으로 일정한 한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내용

학원 교습시간을 법정공휴일과 심야시간에는 제한하도록 함.

법률 제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2조의2(교습시간) ①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22:00 이후에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반론과 답변

○ 풍선 효과로 인해 고액 과외로 이동할 것이 아닌가?

- 일차적으로 개인 과외 교습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 고액 과외로의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는 이미 고액 과외를 하고 있을 것이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는 고액 과외로 이동할 수 없을 것이다.
- 다른 날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면 일요일은 쉬거나 자기주도학습을 할 것이고, 학원을 줄이게 될 것이다.
- 심야영업의 경우를 보면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풍선의 바람을 전체적으로 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심야영업규제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생의 사교육종료시간을 보면 22시 규제를 할 경우 하지 않을 때에 비해 32.6%가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개인 과외 사교육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교육의 양이 줄어든 것이다. 즉, 풍선의 바람이 빠졌다고 볼 수 있다.
-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불법 과외와 같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법제화는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원칙을 확립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이 정당성을 지닌 법이라면 국민들의 준법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의 95%가 지지하는 법이라면 준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 학습권 침해가 아닌가?

-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착순 경쟁에서 다 같이 쉬기로 했는데 일부가 쉬는 시간을 깨고 나간다면 나머지의 휴식권을 침해받는 것이다. 휴일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사회적 합의를 깬 개인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
- 이는 개인의 학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의 여러 수단 중 사회적 폐해가 큰 하나의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사회적 폐해는 학원의 지나친 영업으로, 사교육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불안 심리 조장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 심야영업은 몰라도 일요일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닌가?
 - 심야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일도 청소년이 보장받아야 할 휴식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성인들도 주말에는 노동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학생들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과잉 규제나 아니냐 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의식에 달린 것인데 학부모들의 인식은 학원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의식과 어긋나지 않는다.

- 학생들은 어차피 심야나 휴일에도 경쟁적으로 공부를 한다.
 - 공부를 하더라도 최소한 학원에 돈 내고 하는 공부를 중단시키자는 것이다. 다 같이 학원을 안 보내기로 하면 학부모들로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 학원만 문제인가? 학교도 규제해야 한다.
 - 당연히 학교의 강제적인 방과후수업이나 야간학습도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학원이 제일 문제다. 한계상황부터 손을 대자는 것이다. 학원 규제를 말하는 것은 우선 공교육을 중심에 두고 학원의 적당한 위치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로 학원부터 규제하자는 것이고 학교 측의 유발 요인이 있으면 그것도 개혁하자는 것이다.
 - 학원도 먹고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학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7) 학생 숫자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 학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 생계조건을 고려하여 연착륙시켜야 한다. 학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충격이 올 수 있다. 하지만 학원업의 생존과 번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무한 경쟁을 시키는 것은 문제다. 점진적 축소를 해야 하는데 우선 가장 한계선상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7) 감사원(2015)의 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학원 숫자(서울시교육청 자료)는 2012년 13,635개, 2013년 14,322개, 2015년 15,132개로 증가하였다.

사회적 타협 가능성

- 학원관계자 “학원휴일휴무제 수용할 수 있다” (EBS 교육대토론, 2015.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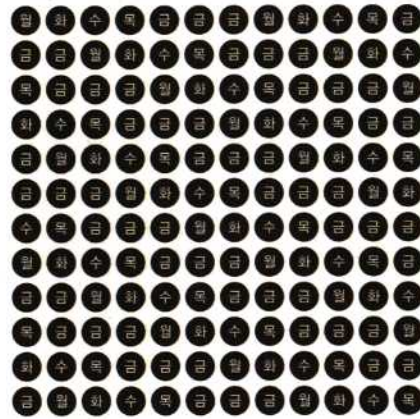


학원휴일휴무법제화를 받아들일느냐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지 않고 또 방과후 보충수업을 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학생에게 학습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도 찬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래 회장/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 분석
 - 학원장들도 휴일까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강사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학원 차량 운전기사들을 포함한 연계된 노동자들의 휴무권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원의 입장은 평일에 학교가 강제적으로 학교에 붙들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휴일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부분에서 학교가 학생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한다면 학원도 휴일영업을 포기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영세 학원은 일요일영업으로 인한 혜택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대형 학원의 일요일 휴무가 상생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

쉽이 있는 교육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달력!



아이들에게 **쉽**는 달력을!



무한입시경쟁으로 인해 새벽부터 심야까지 월화수목금금금의 고된 삶을 사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쉽이 있는 교육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실천과 요구

- ☑ 학부모: 심야시간과 일요일에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 자녀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돕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학생: 심야시간과 일요일에는 충분히 쉬면서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겠습니다.
- ☑ 학교/교사: 너무 이른 등교나 강제적인 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을 시키지 않고,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놀이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 ☑ 학원장: 심야시간과 휴일에는 학원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 ☑ 정부와 국회: 심야시간과 휴일에 입시학원 영업을 규제하는 입법을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요

- ☑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www.restedu.net)
- ☑ 페이스북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 ☑ 쉽이 있는 교육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쉽이 있는 교육을 지지합니다!

강지원(변호사) 대한민국 학생들을 입시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집단적 인권 억압이다. 청소년들의 타고난 인권은 천부의 자연권이다. 누가 아이들의 안락한 휴일을 빼앗아 가는가? 누가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가? 입시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삶이다. 우리 모두는 개혁되어야 한다. 나부터 반성하자.

강태중(중앙대 교수) 쉬운 게으름이나 낭비가 아닙니다. 뒤처짐은 더욱이 아닙니다. 쉬운 성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이웃과 마을을 둘러보기 위한 사랑입니다. 쉬운 일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교육에 쉽이 없으면 교육에서 일이 빠져나갑니다.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우리아이들에게 충분히 쉴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고춘식(교육희망 대표)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찌 보면, 사회와 어른들이 작당을 하여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다는 포장을 하고 있기에 답답함은 더욱 크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하루 중에서는 방과후를 빼앗고, 밤잠까지 빼앗고 있다. 게다가 1주일 중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마저 빼앗고 있지 않은가? 쉽이 없다는 표현으로는 모자란다. 차라리 숨 쉴 틈마저 빼앗고 있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무례요, 생명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월화수목금금금, 아이들의 숨 막히는 삶,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쉴 때도 쉽 없이 자랍니다. 성찰하고 교류하고 꿈을 꾸입니다. 쉽이 있는 교육만이 성찰과 친교, 꿈이 있는 교육으로 이끕니다.

권길중(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범종단답게살겠습니다운동추진본부대표회장) 우리 사회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답게 살기'를 실천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쉽이 있는 교육은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부터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학부모는 학부모답게, 교사는 스승답게 살 수 있을 때 쉽이 있는 교육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이런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원휴일휴무제를 법제화하기를 바랍니다.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우리 사회는 돈, 힘, 앓, 근면에 대한 강조는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성찰과 지혜의 기초인 쉽, 벗, 놀이는 너무 경시 되어왔다. 쉽이 있는 교육을 통해 벗과 더불어 놀 줄 아는 속 깊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되길!

김문수(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쉬어야 힘이 생기고, 쉬어야 나도 돌아보고, 쉬어야 남도 배려해 줄 수 있다. 쉬어야 꽃도 예뻐 보이고 쉬어야 돌멩이도 쓸 만한 곳이 생각난다. 쉬어야 잊었던 것도 생각나고 쉬어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도 떠오른다. 잠시 멈추고 쉬게 하는 것도 참교육이다.

김상민(새누리당 국회의원) 원치 않는 잘못된 경쟁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쉽고 회복의 공간을 열고자 애쓰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진심이 행복한 학교, 쉬운 교육으로 열매 맺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김석준(부산광역시 교육감) 쉬운 멈춤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의 시간입니다. 쉬도 배움의 한 부분입니다. 쉽표가 있는 곳에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과 배움의 기쁨이 자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삶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교육을 넘어 쉬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이 모아지길 기원합니다.

김세연(새누리당 국회의원) 헨리포드는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일만 알고 쉴 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쉬운 교육은 아이들의 인성적, 생체적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환(전라북도 교육감) 좋은 노래를 들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서 한참을 머물러다. 때로는 애달프고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가슴이 벅차 노래를 듣다가 가만히 눈을 감곤 합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귀 기울여보면 훌륭한 가수일수록 꼭 필요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적절한 쉬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 것은 아이들이 삶에서 '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놀 틈, 관계 맺을 틈, 쉴 틈, 꿈꿀 틈을 주지 않는 교육이 아이들을 숨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아이들에게 쉽고 틈을 우리 손으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적절한 쉬고 틈을 준다면 아이들은 특유의 자생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아이들은 배우고 싶어 할 것이고, 꿈꾸고 싶어 할 것이며, 내일을 기대하며 잠이 들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쉽고 틈을 되돌려주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오늘날 현대인들은 좀 더 소유하고 누리려는 욕망에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의 안식을 통해 욕망과 불안을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를 묵상하며 참 인간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비정상적인 교육현장 속에서 힘겹게 성장해가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날 입시경쟁에 매몰되어 쉬를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쉬를 찾아주는 교육 운동이 시작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며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김종희(뉴스앤조이 발행인) '쉬'이라는 단어에서 '숨을 쉰다'는 의미를 느낍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숨 가쁘게 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잠시 쉬면서 숨을 잘 쉬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김현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아이들에게 놀이도 되돌려주고, 모험도 돌려주고, 여행도 돌려주고, 가족도 돌려주고, 꿈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의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지 못하고 사는 삶,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김형태(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제가 교육의원 시절, "우리 학생들도 일요일만이라도 학원 안가게 해 달라"는 학생들의 간절한 호소에 그 짐을 덜어줄 방법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5일제가 실시되었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주말과 휴일이 없었습니다. 대형마트는 격주로 일요일마다 쉬지 않습니까? 그것에 착안하여 학원도 일요일마다 쉬게 하는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그러나 학원 관련 조례는 '시간 제한'만 할 수 있고 '요일 제한'을 할 수 없다 하여,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주5일제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학원휴일휴무제'가 속히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내지르는 한숨과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 죽겠다며 신음하고 절규하는 그 고통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쉬는 교육', '휴일이 있는 삶'을 만들어 줍시다!!!

남승희(명지대 교수) 미래 세대를 생각할 때 학원휴일휴무제는 더 늦출 수 없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장로회신학대학원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호되지 않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내몰리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원휴일휴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청소년들을 양산하고 학업과 성적 문제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이 죽음의 교육을 멈추게 하고 생명의 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쉬는 교육'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박인숙(풀뿌리급식운동본부 대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아이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세계 1위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바깥사다. 쉬운 쉬는 공부와 휴식이 있는 일자리, 느낌이 대안의 삶이 되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쉬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먼저 휴일학원휴무 법제화로 우리 아이들의 숨통을 열어 줍시다. 그 시작을 축하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박정현(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회장) 후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아이들이 지적, 정의적, 신체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반인간적인 교육 환경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마련해 줄 작은 '쉬'의 운동이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박종훈(경상남도 교육감)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린 우리 아이들이 힘겹고 괴로운 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장래를 위한다

는 핑계로 모든 것을 참고 공부에만 열중해야 한다는 압력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지도보다 현재를 즐겁게 살아가고, 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쉽지만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박호권(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우리 아이들의 쉬운 배움에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의 기초가 됩니다. 최근 불거진 여러 청소년문제나 사회문제 해결, 국가경쟁력을 위한 인재양성 등은 스스로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교육 비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여기에 국가는 필요한 제도적 환경으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암기식, 주입식 교육의 한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면서 여전히 암기하게 하고 스스로 정리할 틈 없이 타인의 목소리에 의지하게 만드는 지금의 학원 제도로는 더 이상 내일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제도는 교육적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학원의 시장적 자율성이나 서비스일자리 창출의 명분은 더 이상 우선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는 아이들의 내일과 국가적 미래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이 있고 수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인생을 그 중심에 놓는 일입니다. 국가의 목적이나 기업의 이익이나 학부모들의 욕심을 뛰어넘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인 가치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아이들이 지치고 아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아이들에게 쉽고 학습의 균형 잡힌 삶을 누리게 하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주장과 이해가 있는 학원휴일휴무제 문제도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그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어느 꽃이 2등이고, 어느 들꽃이 아름답지 않으랴?' 학생들 모두가 개개인의 아름다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쉽지만은 교육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서정인(한국컴패션 대표) "우리는 모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부모의 길을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가난으로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컴패션 어린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회복하고 오히려 리더십으로 일어납니다. 주일,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좋으신 아버지 품에서 안식할 최선의 시간입니다."

서천석(서울신경정신과 원장, 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 공부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듣고 외우고 필기할 때만 뭔가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정리해서 머릿속에서 안정된 구조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휴식시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를 MRI로 촬영해 보면 아무 것도 안 하는 순간에 굉장히 뇌가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디폴트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것은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리하고 기존의 지식과 재조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나가고, 직

관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써 공부를 한 차원 높게 올라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로 휴식은 공부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위해서만 휴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휴식은 기본적인 인권이죠. 우리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공부 시간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휴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부모의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자꾸 아이들에게 더 해라 더 해라 하지만 아이들에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피로운 공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고로 쉽지만은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종교, 문화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 기준으로 정립되어 왔습니다. 휴식과 노동의 균형이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와 같은 상식이 대한민국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습시간에 행복감은 끝없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른들의 불안의 희생물, 이윤 추구의 희생물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과도한 공부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른들의 욕심,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것입니다. 학원휴일휴무제는 그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병춘(변호사) 승자독식, 불평등이 용인되는 사회가 무한경쟁을 낳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직, 공공부문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들이 얻는 과도한 보수와 특혜가 학교에서의 무한경쟁을 부추깁니다. 무제한의 경쟁은 절대로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는 죽음의 레이스가 됩니다.

심성보(부산교대 교수) "학교(school)"의 그리스어 어원이 "여유"라고 합니다. 모름지기 공부를 하는 학교가 여유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쉽고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공부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나친 학습노동에 대해 유엔아동인권위원회서도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은 여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선희(서울YWCA 사무총장) 쉬운 휴식을 넘어 평화와 자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과속으로 돌진하는 사교육 드라이브 1주일에 한 번 멈추기! '쉽지만은 교육'이 청소년에게 평화와 자유를 선물해주세요.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행복한 인생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데, 나도 즐겁고 옆사람도 즐겁다". 우리 학생들도 행복한 인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쉬었다 가도 괜찮아!!!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 발달을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어른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 근로시간, 허용하는 연장 근무 시간, 또 연장 근무를 할 때 본인의 동의 여부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대해서는 정규 학습시간만이 지침에 의해 정해져 있을 뿐, 방과후 학교의 학습시간, 학교밖 사교육 시간은 어디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무한대로 열려있다. 학생들은 공부만 하도록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다. 놀고 쉬고 문화생활을 하고, 무엇보다 잠자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면서도 이를 폭력이라, 학대라 생각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가학 중 환자들인가. 부모, 사회, 국가가 합심하여 폭력과 학대에 가담하는 이런 미개한 시대는 이제 그만 끝내자.

이근복(크리스천아카데미 원장) 쉼이 있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해지면, 가정과 학교가 회복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온 사회가 뜻과 힘을 모아 이 교육운동을 실천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밝은 새날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휴식(recreation)은 재창조(re-creation)입니다. 휴식 없이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키우려면, 먼저 아이들에게 휴식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수광(경기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 쉼은 밥이고, 창의성이고, 혁신이다. 쉼이 있는 교육이 바로 교육원형이다!

이수진(꽃다운 친구들 대표) 반가운 소식입니다! 밤10시 이후 밖에서 보이는 전등을 끄고 교실 안에서 불법으로 학원수업을 받는다는 학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원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학원휴일휴무제 입법을 지지합니다.

이용중(아이건강연대 상임대표) 우리나라는 수면, 놀이와 신체활동, 식사시간을 줄이며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도 문제이지만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학력 향상속도를 낮추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낮추며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재앙으로 작용합니다. 중고등학생이라면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자고 2시간은 야외생활 하여야 학력 향상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건강 과학의 기초입니다. 유아라면 4시간은 야외생활 하여야 건강하게 성장하여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미량영양소가 부족한 식생활, 만성적인 수면의 부족, 야외활동의 부족은 생명의 현상에서 바라 본 과학의 입장에서 전례적인 아동 학대입니다. 천재조차 병들게 만드는 이런 문화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쉼이 있는 교육 캠페인은 아이들을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우리 사회의 기초를 놓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유림(서울YWCA 이사) 사교육의 쳇바퀴 속에 갇혀버린 청소년들의 갑갑한 현실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엄마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우리의 아

이들에게도 '쉼'을 주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 도와야 할 때입니다. 서울YWCA는 청소년단체이자 여성단체로서, 적극 이 운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우리 아이들한테 쉼 권리와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힘찬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겨레의 희망 인류의 내일을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참 삶을 가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전진을 축하드립니다.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자주 휴식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라. 그때 뇌는 공부한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장한다. 휴식 없이 계속 공부만 하라. 이것이 배운 것을 단기적으로 기억하다가 쉽게 잊는 최선의 방법이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돌보라. 인지적 학습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서,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최적화된다.

이청연(인천광역시교육감)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쉼이 있는 교육 범국민 캠페인'의 목표와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육청도 2014년 하반기부터 인천 학생들의 건강권과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생활개선 3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상의 삶과 행복을 되찾아 주는 일은 어른들이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쉼 속에서 삶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들로 길러내는 데에 우리 인천 교육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끝까지 밀어붙이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노동과 쉼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저녁이 있는 삶'이란 구호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었죠. 공부와 쉼의 균형은 극한의 학습고통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과 함께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한 쉼을 돌려주는 '학원휴일휴무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에게 삶의 여유를 돌려주자는 시대적 요구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전국재(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소장) 쉼과 놀이는 어린이의 삶이요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교육을 빙자하여 어린이에게서 놀이를 빼앗는 것은 삶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이 없고 매사에 생기를 잃어가고 행복하지 않은 원인은 모두 놀이를 빼앗아 버려서 빛어지는 비극입니다. 쉼을 게으른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무지한 성인들이 저지르는 잔혹 행위입니다. 하루 속히 청소년들에게 쉼과 놀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쉼과 놀이가 청소년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승관(꿈틀리인생학교 교장)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할 시간이 없다면 이 말도 허언이 되겠지요. 함께 사는 삶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조영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인간의 학습과 교육은 세계를 보는 어떤 방식(관점)의 경험에 대한 대화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성찰하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학생은 이러한 과정에 있으며, 자신의 지적 운명을 찾아 나선 주인공이다. 이들에게는 압박감 없이 자신을 자유롭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쉼과 여가의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조현하(서울YWCA 청소년 대표) 월화수목금금금 쳇바퀴 돌 듯 돌아가는 청소년의 일상이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 운동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 언어는 세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저는 '학습노동'이라는 비극적인 신조어를 접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교육 현실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현재의 입시 전쟁 속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청소년학대 혹은 아동학대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습 부담, 학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과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집단 지성의 힘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영석(엘스비어 회장, 전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창의적이며 변화에 민감하고 도전을 즐기는 글로벌한 관점을 가진 재능 있는 인재 풀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들과 부모들의 역할은 이들이 평생 교육이라는 여정의 출발점에 섰을 때 기력이 소진되지 않게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학원휴일휴무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교육 환경을 만드려는 올바른 첫걸음이며 저는 이러한 방향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비록 저는 시장 경제를 존중하지만, 시장이 균형을 상실했을 경우 우리는 합리적인 규제를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흥도(자원순환연대 공동대표) 우리 사회는 앞으로 가는 것만 강조하여 지금 커다란 병이 들었지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쉬면서 가야 하지요. 쉬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주변엔 무엇이 있는지 등등을 돌아보면서 가야지요. 쉬어야 여유도 생기고 새로운 힘이 내안에서 만들어지니까요!

최영우((주)도움과나눔 대표) 사회적 게임의 룰이 달라졌다. 공감능력과 창의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쉼이 없는 교육은 경쟁력은 없고, 경쟁심만 가진 사람을 만든다. 모두가 큰 변화에 깊이 공감하고 반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월화수목금금금... 주말도 없이 무한 경쟁으로 등 떠밀려 학원을 전전공공하는 우리 아이들의 고통에 이제는 응답할 때이다. 아이들에게 휴일만이라도 쉼 권리를 찾아줘서 공부와 쉼의 균형을 회복하고 비정상적인 과열 경쟁을 해소해

야 한다.

최창의(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과도한 노동량을 줄이고 식구들과 쉼과 여유를 즐기기 위해 주 5일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 5일제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쉬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학습량이 많은 우리나라 학생들이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가릴 것 없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원과 과외로 치달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중한 학습노동과 경쟁교육에 시름하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어른이라면 마땅히 이런 현실을 바로잡으려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에서 벌어나갈 쉼이 있는 교육 국민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지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국민캠페인이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학원 및 과외 등 사교육휴일휴무제 법안으로 제정되어 우리 아이들이 휴일만큼이라도 쉬면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최현섭(전 강원대 총장) 다람쥐 쳇바퀴 같은 나날, 긴장과 공포의 경쟁구조는 창조와 열정의 구렁텅이다. 마음과 삶의 여유로운 관조와 짜릿한 도전 체험이 구원의 빛이고 교육의 본질이다.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은 그의 자각이고 어른들의 무거운 책무이다.

한만중(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위원장) 9시 등교가 아침이 있는 교육을 열었던 것처럼 학원휴무제가 우리 아이들이 입시 준비 교육의 터널을 벗어나 삶이 있는 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길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영기(서울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아이들의 쉼, 좋은 성장의 원천입니다. 아이들에게 쉼이 있는 휴일을 허락해 주세요.

쉽이 있는 교육 범국민 캠페인 출범 성명서

학원휴일휴무제를 통해 무한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균형을 상실하였습니다. 어른들의 노동시간도 40시간이 법적 기준인데 한창 야동해야 할 학생들이 책상 앞에서 하루에 12시간, 주당 70~80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도 없고, 주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역설적입니다. 학습효율은 핀란드의 절반 수준이고, 학습효능감은 바닥권입니다. 행복지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과도한 공부로 인해 건강, 정서, 관계, 창의성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입시경쟁입니다. 하지만 입시경쟁과 그것의 뿌리가 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다방면의 노력을 요구하는 큰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작지만 실효성 있는 물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경쟁 체제 하에서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입시경쟁이라는 현실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입시경쟁이 무한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심야시간과 휴일에는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의 영업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쉬면 될 것을 왜 굳이 법으로 규제하느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무일은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근로자의 일요일 휴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각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도 공휴일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한 명이 휴일에도 일하면 다른 사람들도 일해야 하는 심리적 환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원의 휴무도 보편적 입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95%가 찬성합니다. 학부모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합의를 법으로 이끌어내는 정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여론을 바탕으로 학원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규제하는 입법을 정치권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학원업계의 강력한 반대 때문입니다. 학원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은 밤 10시까지 제한한 심야영업규제 조례마저도 무력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쳐 쓰러지든 말든 학원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무한정한 욕망의 표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1841년에 프랑스는 8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8세 미만의 아동

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너무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공장의 이익이 아동의 건강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현실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입시경쟁이라는 절박한 조건을 이용하여 학생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은 동일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쟁은 없앨 수 없다 하더라도 경쟁에도 최소한의 한도는 필요한 법입니다. 적어도 밤 10시 이후의 시간, 일주일에 하루는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교육이 없어도 학생들은 이미 충분히 쫓기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이런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가속화하고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쳐 탈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멈추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무한경쟁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소진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이 무한경쟁의 야만적 게임을 멈추자고 제안합니다.

일부에서는 쉽이 있는 교육의 결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쉽이 있는 곳에서 참된 배움의 기쁨이 살아납니다. 건강과 감성과 관계와 창의성이 꽃피울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공부기계가 아니라 참된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삶을 누리며 배우고 성장하는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범국민 캠페인 출범식을 통해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지를 일깨우고자 합니다. 불안과 탐욕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일깨우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학원업계의 이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개인과 단체가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알려주십시오. 자신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넣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편 이 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실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과도한 공부를 강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강제적인 보충이나 야자를 강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합니다. 학생들 또한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것을 다짐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원장들은 자발적으로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학원장들의 참여야말로 진정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휴일에 지금 세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자녀들에게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상상해봅니다. “옛날에는 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녔단다.” “정말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 심야에도 일요일에도 학원을 전전하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2016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단다.”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나아진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2016.5.3. 쉽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쉽이있는교육

www.restedu.net

1부 간소한 식사 및 퍼포먼스 체험

18:00-19:00

- 간소한 식사(샌드위치, 커피, 음료, 과일)
- 퍼포먼스 및 포토존 체험

2부 '쉽이있는교육 - 학원휴일휴무제' 법제정 출범식

19:00-20:10

사회 : 윤지희 대표

- 여는 공연
 - 노래 : 심단 '꿈꾸지 않으면'
 - 댄스 : 노아 틴에이저 'ONE HEART'
- 개회
- 내빈 소개
- 축사 (손봉호 교수 외)
- 운동 추진계획 발표 (김진우 대표)
- 쉽교육 이야기
 - 발표 : 이우진 학생, 이유남 학부모
- 쉽교육 무언극 (마임이스트 조인정)
- 성명 발표
- 쉽교육 알리기 (다함께)
- 기념사진 촬영

